



순창군 섬진강 마실 캠핑장이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신개념 캠핑문화를 도입한 멀티형 캠핑장으로 변모를 시도해 전국 캠핑족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섬진강 마실 캠핑장 시설 대폭 확대

순창군, 카라반 3대 추가·글램핑장 6동 3월중 설치 완료 계획

순창군 섬진강 마실 캠핑장이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신개념 캠핑문화를 도입한 멀티형 캠핑장으로 변모를 시도해 전국 캠핑족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최근 동계면 장군목 섬진강변에 위치한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시설에 카라반 3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 한글 자음을 본딴 특색있는 글램핑장 6동도 3월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색 있는 시설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서바이벌 캠핑문화도 도입한다. 섬진강 마실 캠핑장을 위탁운영하는 휴선유래(주)와 공감코리아(대표 최주영)은 최근 협약을 맺고 마실 캠핑장에서 서바이벌 프레젠테이션 브랜드인 피티워(PT WAR)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피티워(PT WAR)는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 등 모든 사람들에게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자들이 팀을 나눠 PT 자료를 만들고 발표시간을 통해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감코리아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실숙박단지를 기업연수나 대학생 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해 캠핑을 즐기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능력 향상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 측도 장군목, 용결산 치유의 숲 등 천혜의 자연이 빛어낸 순창 섬진강 마실 캠핑장이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캠핑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국에서도 가장 특징적이고 인기 있는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선유래(주) 김기성 대표는 "섬

진강 마실 숙박단지 협약식을 통해 캠핑문화의 다변화와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할 것이다"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쟁 프레젠테이션 환경에 직면한 현대인에게 보다 능동적인 서바이벌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한 만큼 캠핑장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기업교육의 차별화된 서바이벌 프레젠테이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캠핑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는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 주변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펜션 3동 야영장 18개, 카라반 3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주변에 섬진강과 용결산 치유의 숲, 발릉산 산책로 등이 함께 위치해 해마다 9천여명 이상이 찾는 아름다운 캠핑장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순창군, 농림축산식품사업 20일까지 신청 접수

식량·원예 등 68개 사업

순창군에서는 2018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오는 2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에 따라 각 읍면사무소와 농림사업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식량·원예·식물·산림·농촌개발·축산·수산 광특회계 분야 등 총 68개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주관부서(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 경영 일지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군과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세부 사업별 지원조건과 내용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국가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고창경찰, 졸업식장 뒷풀이 예방활동

고창경찰서에서는 2월 개학과 더불어 시작되는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학교당국, 패트로부터 등과 함께 갑갑적 뒷풀이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창지역은 41개 초중고가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특히 일부 학생들이지만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밀가루와 계란투척 등 갑갑적 졸업식 뒷풀이가 우려되는바 2월 한달간 졸업식 갑갑적 뒷풀이 예방과 더불어 신학기 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뒷풀이 예상 지역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과, 112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교복 찢기, 계란과 밀가루 투척, 알몸 만들기 등 탈선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졸업식 이후에도 학부모와 학교,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술·담배 판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 위반 등에 대해서도 선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창경찰서장은 "졸업식 이후 신학기 전까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추운 날씨에 활동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 '바꾸자 건강나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겨울철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로당 100개소에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어르신 건강프로그램으로 고창군 보건소와 고창군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민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한기인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체조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집중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건강체크와 주1회 영양, 절

주, 금연, 비만,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매검진 등 영역별 통합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 1회 지속적으로 순회방문을 통한 건강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경로당별 건강지도자를 정하고 건강자조모임을 결성하는 등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때 지역도 더욱 활기차게 발전해 갈 수 있다"며 "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창규 경위, 신장질환 환자 구해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지난 30일 오후 3시 50분경 부영사우너에서 쓰러진 사람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구조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서 중앙지구대 1팀장 경위 박창규는 설 연휴인 지난 30일 휴무 중이었고 매마침 남원 동동동 소재 A모 사우너에서 목욕을 하던 도중 온탕에 누운채 사람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창규 팀장은 발견 즉시 온탕에 떠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기도확보와 동시에 주변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게 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귀중한 한 생명을 구하였다.

쓰러진 남성은 평소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새단장'

10억원 투입... 개별난방 교체·화장실 확장·무선인터넷 설치

고창군(군수 박우정)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자리한 선운산유스호스텔이 확 달라졌다.

군에 따르면 선운산유스호스텔에 국비 8억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객실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고 오래된 창호와 벽체 교체, 객실 내 화장실 확장과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난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객실마다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젊은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활용을 도 높여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쉴 수 있도록 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선운산도립공원에 자리한 선운산유스호스텔이 더욱 쾌적한 환경을 갖추면서 기본 좋게 하루 더 머물고 고창 지역 관광명소를 더 많이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며 "올해도 기



능보강사업비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신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꾸며 이곳을 찾는 청소년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에 완공한 유스호스텔은 본관에 32개의 객실과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자

가 취사장, 야외공연장, 식당을 갖추고 있고 2008년도에 신축한 별관에 2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총 53개의 객실에 31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청소년 캠프와 대학생 MT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비수기철 전국대회 개최

순창군이 스포츠 대회 비수기철인 2월에 전국대회 3개 대회를 개최해 순창일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58회 전국유소년전구대회가 공설운동장 실내코트에서 열리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2017 전국유소년야구대회, 24일부터 28일까지는 '2017 순창 한국실업정구연맹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특히 2017 전국유소년야구대회는 이미 76개팀이 참가신청을 한 대규모 대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순창군은 정식 야구장은 없으나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지난해 3개의 유소년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어 이번 대회 성공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전국의 정구 선수단이 전지훈련 일정을 순창에서 진행하는걸로 조율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순창군이 올해 유치를 확정된 대회는 총 3개 대회로 국제 1, 전국 24, 도대회 5개 대회다.

순창군 체육관계자는 "중양 경기단체 동맹을 수시로 파악해 개최지 미정의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함께하는 희망농업 육성 박차

원예·과수 등 42억원 투입

임실군은 올해 농업인 소득사업 기반 확충을 위해 원예·과수 및 시설하우스에 42억원을 투입, '함께하는 희망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분야별 지원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원예작물 생산지원 9억원, 고추 품질 차별화사업에 4억원을 투입해 명품 고추 생산지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 유통시

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는 복숭아를 비롯한 과수분야에 7억원을 집중 투자, 고품질 명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딸기, 토마토, 부추의 소득 기반 확충과 품질향상을 위해 23억원을 투입한다.

/임실=진홍영 기자